

언어 ·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

-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중심으로 -

픽셀 튀르코주*

〈차 례〉

1. 서론
2. 외국어 교육과 문화
 - (1) 문화 교육의 목표
 - (2) 문화 교육의 내용
3. 한국어와 터키어의 언어 · 문화적인 대조 분석
 - (1) 호칭어
 - (2) 높임법
 - (3) 관용어
 - (4) 속담
4.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향
5. 결론

I. 서론

터키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 터키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현재까지 터키 내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정규 교육기관¹⁾인 앙카

* 앙카라대

- 1) 2000년에는 Erciyes(에르지예스)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신설되었지만 지원자가 없어 아직까지도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앙카라 대학교는 수도 앙카라에 위치하고 있고, 에르지예스(Erciyes) 대학은 지방 대학으로 앙카라 동남쪽에 위치한 카이세리(Kayseri)라는 도시에 있다. 하지만 한국 회사들의 지사들이 주로 터키의 제일 큰 도시인 이스탄불(Istanbul)과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터키의 세 번째 큰 도시이자

라 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의 한국 문화 교육은 체계적이지 않다. 본고는 터키에서의 한국 문화 교육의 교육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터키 내에서의 한국 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한다.

터키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사고 방식이 비슷하고 문화적 요소 또한 유사점이 많다. 예를 들어, '품앗이, 계, 혼수, 중매, 운명, 인연' 등의 개념들은 터키인에게도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이렇듯 두 언어에서 문화적으로 공통적인 개념이나 문화 요소들을 가르치는 것은 터키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필연적이다. 게다가 터키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교수는 학습자들의 문화적 적응을 도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 주어야 한다.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원활한 의사 소통 능력이며,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정한 언어 집단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을 익히는 것은 그 언어 집단에서의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의사 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부분 가운데 이른바 '문화적 능력' 혹은 '사회 문화적 능력'이 부각된 이래 문화 교육은 외국어 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형태를 익히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언어 활동의 기능을 증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 언어 사회의 문화적 양태를 적절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언어의 구조(조항록, 2000)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한국 문화에 관한 교육이 요청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문화는 그 개념이 매우 다양해서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언

항구 도시인 이즈미르(Izmir)에 있고, 또한 이 두 도시는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이 두 곳을 가장 많이 방문한다.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 대부분은 이 두 지역에서 온 학생들인데, 이 두 지역에 한국어과를 설치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 요즘은 이스탄불에는 개인적으로 사설 문화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한국에서 직접 한국어를 배우는 터키인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은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 교육에서 문화는 인류학, 사회학 등의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인간의 삶의 방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학 사전²⁾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및 인간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획득한 어떤 다른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총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거시적 관점에서 문화는 한 공동체의 행동 양식, 예술, 신념, 제도, 종교, 가치관, 언어 등 모든 산물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인간의 생활 양식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언어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언어 교육 측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언어·문화적인 요소 중 호칭어, 높임법, 관용표현과 속담만을 다루기로 한다.

의사소통 능력은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언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언어 속에 문화적 요소가 깊이 스며든 한국어의 경우 문화 교육의 비중이 더욱 더 높아야 한다. 한국어의 언어·문화적인 요소 가운데서도 호칭어, 높임법, 관용표현 등은 한국어와 관련된 문화 요소로, 한국어 교육에서 반드시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문화 교육에서 다루야 할 내용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 면에서도 다양하다.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라 교육 방법이 차이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초급 단계³⁾를 중점적으로 언어·문화 차원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중요한 문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호칭어, 높임법, 관용어와 속담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어와 터키어의 호칭어, 높임법, 관용어와 속담을 비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터키의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조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외국어 교육과 문화에 대해 간략하게

2) 국어교육학 사전(199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 출판.

3) 초급 과정을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의 학습 과정으로 설정했다. 1학년 첫 학기에는 한글, 기본 어휘와 기초 문법 학습이 이루어진 후 2학기부터 한국어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이다.

살펴보는 것이 논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II. 한국어 교육과 문화

외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주장해 왔다. Byram(1999)은 언어는 그 세계의 지식과 자각, 문화의 개념, 문화 학습을 지칭하기 때문에 언어 교육 및 교수에서 문화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음을 근거로 하여, 'Hidden curriculum(내포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여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비록 밖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꼭 다루어야 할 항목으로 간주하였다. Kramersch(1993)는 "언어 교수는 곧 문화 교수(Teaching language is teaching culture)"라며 언어 교수 및 학습에 있어서의 문화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정 사회집단에서 통용되는 언어에는 바로 그 집단의 문화가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 소통 능력 신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할 때 언어와 문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기철(1998)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그 내용을 제시하며 사회 문화적인 목표로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제안하였다.

- ① 언어와 관련한 문화적 특성 이해.
- ② 사회·문화적 배경과 언어 표현의 이해.
- ③ 언중의 정서와 언어 표현 이해.
- ④ 사회, 문화, 정서 및 역사의 이해.
- ⑤ 모국어와 목표 언어 사회의 사회, 문화 비교.

다음으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그 전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문화 교육의 목표

문화 교육에서, 목표 문화의 가치관, 사고방식, 세계관이라는 문화의 심층적인 부분의 파악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가 목표 문화 탐구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문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 학습자는 목표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과 흥미가 목표 문화를 바로 알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는 정신적인 면의 접근을 단순히 언어와 관련된 문화적 사항의 학습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학습자가 목표 문화를 탐구평가하고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 위주로 된 문화적 사실의 주입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문화 교육은 일반적인 목표 문화의 지식 습득만이 아니라 자국 문화의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상호작용에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서 목표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한국어를 한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려면 한국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세계관과 생활양식을 다양하고도 풍부하게 경험해야 한다. 한국 문화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 사회에 대한 선입관에서 오는 부정적 태도나 문화 충격을 극복할 수 있다.

2. 문화 교육의 내용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다루어야 할 한국 문화의 내용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야 한다. 문화란 광범위한 것이므로 목표 문화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외적인 면에서부터 내적인 면에까지 골고루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문화의 범위에서 꼭 교육되어야 할 문화적 내용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김정숙(1997)은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함께 교육해야 할 문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일상생활 양식과 관련된 문화 요소로 인사하기, 감사 표시하기, 사과하기 등과 같은 행동양식.
- ② 속담, 관용어, 문화적 지시어 등의 문화적 특질을 가지고 있는 언어적 요소.
- ③ 화법과 경어법.
- ④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역사적 사건 및 기관, 지리적 기념물 등과 정치 경제적 요소.
- ⑤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체육, 대중예술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및 그들의 작품.

이상과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문화 내용은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며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소재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화 교육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단계마다 꼭 다루어야 할 문화적 내용의 목록을 만들고 교재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계획적인 문화 교육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법과 어휘 교육 전에 단계마다 지침을 마련하듯이 문화에 대한 내용을 세워야 한다.

다음은 김정숙(1992)이 제시한 단계별로 다루어야 할 문화적 내용이다.

<1 단계>

- ①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익히게 한다.(인사, 방문, 식사, 예절 등)
- ② 일상생활과 밀접한 한국 문화와 사회제도를 가르친다.(명절, 국경일, 아리랑 노래 등)

<2 단계>

- ①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익히게 한다.(한국인의 생활양식, 결혼 풍습 등)
- ② 한국의 역사나 위인, 문화적 유산에 대하여 설명한다.(한글, 세종대왕, 고려자기, 단군 신화, 간단한 한국사 등)

(3 단계)

- ①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넓힌다.
- ② 한국의 역사나 위인, 문화적 유산에 대하여 설명을 넓힌다.
- ③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 단편소설, 수필과 같은 문학작품과 역사 등을 소개한다.
- ④ 오랫동안 인기가 있는 영화나 노래를 소개한다.

김정숙(1992)은 여기에 속담과 관용어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초급과정부터 빈도가 높은 속담과 관용 표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박영순(2001)은 언어교육을 위한 문화론으로서 높임법, 관용어, 속담, 한국을 상징하는 말과 문화재 명칭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압존법의 경우, 고급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높임법의 하위 요소로 지적하였다.

문화 교육은 초급단계부터 간단한 일상생활양식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한국 문화와 사회제도에 대한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 위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일부 실력 있는 학습자 이외에 일반적인 학습자에게는 다소 이해하기가 힘든 경향이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초급단계에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문화 관련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욱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 교육은 언어교육과 함께 통합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Ⅲ. 한국어와 터키어의 언어·문화적인 대조 분석

외국어 교육에서 대조 분석 방법은 학습하고자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음에서부터 구조, 문법, 어휘, 문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모국어의 그것과 대조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면 학습자들이 학습 시 일어나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대조 분석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윤여탁(2000)은 한국어 교육이나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이동(異同)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대조언어학의 방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어와 터키어는 구조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우선 유사점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국어는 샤머니즘, 유교 그리고 불교의 영향이 많이 보이고 터키어에는 샤머니즘과 이슬람교의 영향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아기를 부를 때 한국에서도 귀엽고 예쁜 이름 대신 '개똥이' 같은 표현으로 부르며, 터키에서도 'çirkin(미운 새끼)' 등의 표현을 쓴다. 터키의 경우, 이것은 아기를 나쁜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인한다.

터키 학습자들에게 언어·문화 교육을 할 때 유사한 것들부터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한국어와 터키어의 유사한 점이 많고 이로 인해 학습자들의 동기를 더욱 더 쉽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의 문화적 요소는 학자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언어·문화 요소로 볼 수 있는 호칭어, 높임법, 관용어와 속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호칭어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언어적 장치들 중의 하나이다.(박정운, 1997) 한 언어의 호칭어 체계는 그 언어 집단의 사회 질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터키 사회는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계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연령차가 확연히 나는 순위 상대에게는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다. 이는 터키에서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선배 후배와 같은 호칭은 터키어에도 있다. 하지만 이 두 호칭은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고 군대에서 사용된다.

터키어에서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중요한 호칭은 이름(FN)과 직함(title-T)이다.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경우 주로 친밀도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친밀도가 높은데도 연령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이름으로만 부르지는 못하고 이름 앞에 abi(형, 형사), abla(누나/언니), teyze(이모/아줌마), amca(삼촌/아저씨) 등의 호칭어를 꼭 사용한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호칭어 체계⁴⁾에 따라 두 언어의 호칭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이름 호칭어 유형

이름 호칭어는 상하관계(power)와 친소관계(solidarity)에서 사용상의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제약들 중 한국어 이름 호칭어의 사용에 적용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름 호칭어가 일반적으로 윗사람에게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터키어도 비슷한 특징을 보여준다. 터키어에서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친소관계의 측면에서 이름 호칭어는 일반적으로 친한 관계에서 사용된다.

한국어에는 이름을 부를 때 호격조사로 '아/야나 '씨'등을 사용한다. 터키어의 경우는 호격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씨'는 '성-이

4) 호칭어 체계에 대해서 박정운(1997)을 참조함.

름', '이름', '성'에 모두 붙어 호칭어로 쓰이는데, 터키어의 경우에는 '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성일 경우 'Bey(Mr.)', 여성일 경우 'Hanım (Miss/Mrs)'이 사용된다.

(1) a. Selim beyle, Sonay hanım henüz gelmedi.

b. 셸림 씨와 선아 씨는 아직 안 왔어요.

2) 직함 호칭어 유형

한국어에는 직함이 단독으로 쓰일 경우, 존대 접미사 '-님'이 직함에 붙어 상대를 높여주는 호칭어를 형성한다. 즉 '교수'와 같이 직함 단독으로는 일반적으로 호칭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터키어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터키어에는 상황에 따라 직함에 소유격 조사 {-(I)m}을 붙여서 호칭어를 만들거나 직함 앞에 'Sayın(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붙인다. 직함에 소유격 조사를 붙이는 경우 상대에 대한 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수를 'hoca-m(교수님)', 회장을 'başkan-ım(회장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판사(hakim)나 변호사(avukat)와 같은 직함 앞에는 'sayın(존경하는)'을 붙인다.

(1) a. Hoca-m. (선생님)

b. Sayın hoca-m. (존경하는 선생님)

c. Sayın hakim. (존경하는 판사님)

d. Sayın avukat. (존경하는 변호사님)

또한 한국어에는 '이름'은 직함과 함께 호칭어를 형성할 수 없고 '성'이나 '성-이름'은 직함과 함께 호칭어가 될 수 있지만 터키어의 경우 '이름'이나 '성' 그리고 '성-이름' 모두 다 직함과 함께 호칭어가 될 수 있다.

(2) Selim Hoca(m). (셸림 교수(님))

3) 친척 호칭어 유형

한국어에는 터키어에 비해 가족과 친족을 칭하는 호칭이 복잡하며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나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란 호칭들은 터키어에 없지만 할아버지를 큰 아버지, 할머니를 큰 어머니라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삼촌'의 뜻을 가진 'amca'는 '아저씨' 대신에 쓰이기도 하고 '이모'의 뜻을 가진 'teyze'는 '아주머니'로도 쓰인다. 또한 터키어에는 '이모(teyze)'와 '고모(hala)' 그리고 '삼촌(amca)'과 '외삼촌(dayı)'의 구분이 뚜렷하다. 터키어에는 '촌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터키 학습자들이 '삼촌', '사촌'까지는 이해하기가 쉬어도 오촌부터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터키의 친족 호칭과 한국의 친족 호칭에서 차이점은 터키의 경우 대부분 성별에 따른 호칭의 구분이 터키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어에는 화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형'/오빠'로 구분되는 것이 터키어에는 'ağabey(abi)' 하나로 동일하게 지칭된다. '누나'/언니', '조카'/질녀' 등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터키에서 이러한 호칭들은 성별의 구분 없이 남녀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터키어의 경우 부계와 모계에 따른 친족 호칭의 구분이 한국어의 경우보다 더 세밀하게 나타난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터키어에서는 'amca(삼촌)'/dayı(외삼촌)', 'babaanne(할머니)'/annanne(외할머니)' 구분이 그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와 같은 시아버지/장인, 시어머니/장모의 구분은 터키어에도 나타나고 있다.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호칭은 화자가 남성일 때 'kayınpeder(장인)'/kayınvalide(장모)' 화자가 여성일 때 'kaynata(시아버지)'/kaynana(시어머니)'를 사용한다.⁵⁾

5) 요즈음은 이 구분이 젊은 세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valide와 peder은 외래어인데 존경의 뜻을 표시한다.

【표 2】 한국어와 터키어의 친족 호칭어 대조

한국어 호칭어	터키어 호칭어
할아버지/외할아버지	dede, büyükbaba
할머니/외할머니	babanne, nine/annanne, nine
아버지/시아버지/장인	baba/kayınbaba, kaynata
어머니/시아머니/장모	anne/kaynana
형-오빠/누나-언니	abi/abla
남동생/여동생	erkek kardeş/kız kardeş
삼촌/외삼촌	amca/dayı
고모/이모	hala/teyze
고모부/이모부	eniste
백모/숙모/외숙모	yenge
조카/질녀	yeğen
사촌(남/여)	kuzen
사위/며느리	damat/gelin
아들/딸	oğul/kız
처제/처남	baldız/kayınbirader
시누이/시동생(시아주버니)	görümce
동서(남/여)	elti/bacanak
형수/제수	yenge
형부/매형/매부/자형/매제	eniste/damat
사돈	dünür

4) 대명사 호칭어 유형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는 형태상으로 다양하지만 사용 측면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다. 6) 예를 들어 한국어에는 연장자나 상사에게 2인칭

6) 한국어에는 여러 형태의 2인칭 대명사가 있다. 한국어의 2인칭 단수 대명사가 몇 개인가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르다. 실제로 언어 현실에서 살펴보면, 영어에서 대명사 'you'가 쓰이는 위치에 한국어는 다양한 형태의 2인칭 대명사들이 쓰인다. '네',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터키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직장 상사에게도 허물이 없는 사이일 때는 나이나 사회적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통틀어 비존칭 대명사 'sen(너)'을 사용하며, 초면이거나 단순한 사회적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존칭 대명사 'siz(당신)'을 사용한다. 결국 터키어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대명사 'sen(너)/ 'siz(당신)'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의 친분 관계에 따라 비대칭적 사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연장자가 상대에게 'sen(너)'을 사용하는 점은 한국어와 같지만 반대로 연하인 사람도 한국어와 달리 터키어에서는 친분 관계에 따라 'sen(너)'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격식이 필요치 않은 친한 사이일 경우에 터키어에서는 존칭의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존칭의 사용은 도리어 친밀감을 반감시킬 수도 있다.

또한 터키어에는 2인칭 존칭 대명사 'siz'은 2인칭 복수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 (1) a. Siz kimsiniz?(2인칭 단수)
b. 당신은 누구십니까?
- (2) a. Siz kimsiniz?(2인칭 복수)
b. 너희들은 누구야?

5) 통칭적 호칭어 유형

청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직함이나 친족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직함이나 친족어 등에 근거한 호칭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칭적 호칭어'라 부를 수 있다. 한국어에는 직함 호칭어들이 일반화되어 사용되는 호칭어들로 '선생(님), 사장님, 학생' 등이 있다. '선생'이라는 통칭적 직함 호칭어는 터키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hoca'이다.

'그대', '자기', '당신' 등이 그것인데 터키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2인칭 대명사를 제대로 습득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편이다.

‘학생’에 해당하는 터키어는 ‘öğrenci’이지만 이들을 부를 때는 대부분 ‘젊은이’라는 뜻의 ‘genç’라는 호칭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 직함 호칭어의 ‘사장님(patron)’은 터키어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대신 상대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efendim(굳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선생님’ 정도의 뜻)’이라는 호칭어가 사용된다.

또한 터키어의 친족 호칭어 ‘teyze(이모)’는 한국어의 ‘아주머니’로 ‘amca(삼촌)’은 한국어의 ‘아저씨’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호칭어이다. ‘abi(형/오빠)’와 ‘abla(누나/언니)’도 친족 호칭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친분 여하를 막론하고 연장자에게 폭넓게 사용되는 호칭이며 존경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동년배인 경우일 지라도 가까운 사이일 경우 ‘abi’나 ‘abla’의 호칭을 쉽게 사용한다.

- (1) a. Amca bir gazete verir misiniz?
b. 아저씨 신문 하나 주세요.
- (2) a. Dün İstanbul’dan amcam geldi.
b. 어제 이스탄불에서 삼촌이 왔다.

2. 높임법

터키어의 높임법은 그 활용 범위가 한국어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지만 주체높임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물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동사는 두 가지의 형태의 대명사 사용이 두드러진다. 평소 친한 사람들과의 대화 시 사용되는 동사와 공식적인 만남에서 사용되는 동사에서 높임의 의미를 갖는 어미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곧, 2인칭 대명사 ‘sen(너)’와 ‘siz(당신)’의 서술어 종결어미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터키어는 한국어와 비교해 존칭의 사용이 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또 존칭이 3인칭보다는 2인칭의 경우에 더 많이 사용된다. (예1b) 또한 2인칭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높임은 터키어에도 존재

한다. 이 경우에 존칭어미가 (2b)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사물이나 호칭 뒤에 온다. 원래 3인칭에 대한 높임법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3인칭에 대한 높임법은 (3b)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형 어미 {-IEr}으로 이루어진다.

- (1) a. 선생님, 학교에 언제 가십니까?
b. Öğretmen-im, okula ne zaman gidiyor-sunuz?
- (2) a. 선생님, 혹시 팬이 있으세요?
b. Hocam, acaba kaleminiz var mı?
- (3) a. 총장님께서 어제 터키에 가셨습니다.
b. Rektör Bey-ler dün Türkiye'ye gitti-ler.

높임법 사용의 범주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직위, 언어 행위, 공식적 조건에 기초하여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높임법은 사회적 체계의 구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터키어의 경우 높임법은 그 실현 범위가 한국어에 비해 훨씬 다양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주체높임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권재일(1997 : 118)이 제시한 높임법의 실현 방법에 따라 두 언어의 높임법을 대조 분석하기로 한다.

1) 주체높임법

한국어에서 인물에 대한 존대는 존칭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에 의해 표현된다. 이에 따라 주어에 결합하는 주격조사 {-이/가}는 {-께서}로 바뀐다. 그러나, (1b)와 (2b)에서 볼 수 있듯이 터키어에는 한국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선어말어미와 존칭을 나타내는 주격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 (1) a. 선생님께서 학교로 가신다.
b. Öğretmen okula gidiyor.
- (2) a. 동생이 학교로 간다.

b. Kardeşim okula gidiyor.

터키어에는 존칭의 사용이 언제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3인칭보다 2인칭에 대해 더 많이 사용된다.

- (3) a. 선생님, 학교에 언제 가십니까?
b. Öğretmenim, okula ne zaman gidiyorsunuz?
- (4) a. Saat 3'te geliniz.
b. 3시에 오십시오.

2) 상대높임법

상대높임법은 화자가 특정한 종결어미를 씀으로써 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이에 해당하는 실제 사용하는 종결어미를 각각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라 한다. 이 것을 '격식체'와 '비격식체'라 나눌 수도 있는데 다음 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터키어에는 상대높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1)의 문장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에 따른 변화가 터키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 | |
|-------------------------|--------------------------|
| (1) a. 어제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 Dün bütün kitabı okudum. |
| b. 어제 그 책을 다 읽었소. | Dün bütün kitabı okudum. |
| c. 어제 그 책을 다 읽었네. | Dün bütün kitabı okudum. |
| d. 어제 그 책을 다 읽었다. | Dün bütün kitabı okudum. |
| e. 어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 Dün bütün kitabı okudum. |
| f. 어제 그 책을 다 읽었어. | Dün bütün kitabı okudum. |

3) 객체높임법

객체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등이 지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화자가 높임의 의향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 (권재일, 1997 : 120) (1)에서 볼 수 있듯이 터키어에는 객체높임법이 존재하지는 않다. 하지만

'vefat etmek(돌아가시다)', 'teşrif etmek(오시다)'의 외래어에서 들어온 높임 어휘들이 존재한다. 이 것을 (2a)과 (2b)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 (1) a. 나는 그 책을 철수한테 주었다. Ben o kitabı Çolsu'ya verdim.
 b. 나는 그 책을 선생님께 드렸다. Ben o kitabı hocama verdim.
 (2) a. Filistin'de çok çocuk öldü. 팔레스타인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b. Dedem geçen sene vefat etti.⁷⁾ 저의 할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다.

3. 관용어

관용어란 특정의 문법 구조에 묶여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어휘 항목 범주를 말한다.(김광해, 1995) 이러한 관용 표현들은 어휘의 화용적 변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화자나 필자의 표현 의도와 관련이 있다.

관용표현은 사회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특수한 말로서 언어·문화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관용표현은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전통을 함께 하는 언어 집단 속에서 형성되고 그 집단의 의사 소통에서 자연스럽게 쓰여진다. 따라서 관용표현은 단일한 언어 사용집단의 구성원들에게만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에게는 관용표현은 문법의 틀을 벗어나는 특이한 표현으로 이해됨으로써 학습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수 먹다', 'pilav yemek(밥 먹는다)'는 표현을 살펴보자. 터키에서는 주식이 밀이지만 결혼식에는 밥을 해서 먹는다. 따라서 한국에서 상대방에게 결혼을 언제 하느냐는 의미로 '국수 언제 먹겠느냐'고 묻는 것은, 터키어에서는 '밥을 언제 먹겠느냐'고 말한다.

7) vefat은 아랍어에서 온 단어로 죽음이란 뜻이며 'etmek'이란 보조동사와 함께 쓰인다. 이와 같이 존칭의 뜻을 가진 표현 몇 가지를 들면,
 gelmek = 오다. teşrif etmek = 오시다.
 vermek = 주다. lütfetmek = (양보해)주시다.

한국어와 터키어의 관용표현 중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 많은 편이다. 두 언어에 비슷한 관용표현이 많을수록 사회, 역사,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터키어와 한국어의 관용표현에 대한 대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사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와 터키어 관용어 중에는 신체 부위 명칭과 결부되어 활발한 분포를 보이는 관용어가 많다. 그 중에 '손이 크다'는 관용어가 터키어에서 'eli bol(손이 넓다)', '손이 맵다'는 관용어가 'eli ağır(손이 무겁다)'로 나타난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관용어가 많은 편인데 (1)에서는 이것을 볼 수 있다.

- (1) a. '손을 떼다 : el çekmek'
- b. '손을 벌리다 : el açmak.'
- c. '손발이 묶이다 : eli ayağı bağlı'
- d. '손을 내밀다 : el uzatmak'
- e. '손아귀에 넣다 : avucunun içine almak/koymak'

인간의 의사 소통에 있어서 감각기관을 나타내는 낱말들은 원래의 기능 의미에서 파생되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 표현은 그 의미의 차이를 불문하고 어느 언어 집단이든 간에 두루 사용된다. 특히 인간의 사고나, 감정 그리고 행동 방식 등의 가치판단을 담은 표현은 신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관용어로 표현된다.

한국어와 터키어의 신체 관련 관용표현⁸⁾ 중 '머리(두부)'와 관련된 관용어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한국어와 터키어의 관용표현의 예를 비교하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어와 터키어에서 두부와 관련된 관용어들 중 표현과 의미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관용어와, 의미는 유사하지만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관용어 그리고 표현은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관용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8) 신체어는 크게 두부(頭部), 동체(胴體), 사지(四肢), 전체(全體)로 나눌 수 있다.(고바시, 1994)

1) 한국어 터키어 양어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관용어

머리, 얼굴(낯), 귀, 눈, 코, 입, 이, 혀, 목 등에 대한 관용 표현 중 양 언어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즉 표현과 의미가 유사한 관용 표현은 많은 편이다. 이는 터키인과 한국인의 사고 방식이 비슷하고 문화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급 과정의 터키 학습자들에게 두 언어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관용 표현부터 가르치는 것이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 | | |
|------------------|--------------------------------------|
| (1) a. 머리가 복잡하다. | kafası karışık. |
| b. 머리가 숙여지다. | baş eğmek. |
| c.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 baştan ayağa kadar. |
| d. 머리를 쓰다. | kafayı kullanmak. |
| e. 머리 속이 비다. | kafası boş olmak. |
| (2) a. 낯을 붉히다. | yüzü kızarmak. |
| b. 두 개의 얼굴. | iki yüzlü. |
| c. 얼굴에 침 뱉다. | yüzüne tükürmek. |
| (3) a. 귀가 트이다. | kulak kabartmak. |
| b. 귀를 (쫓긋) 세우다. | kulaklarını dikmek. |
| c. 귀밑이 빨개지다. | kulakları kızarmak. |
| d. 귀에 익다. | kulağa alışık olmak. |
| (4) a. 눈 깜짝할 사이. | göz açıp kapayıncaya kadar. |
| b. 눈도 깜짝 안 하다. | gözünü bile kırpmamak. |
| c. 눈에 보이는 것 없이. | gözüne hiçbirşey görünmemek. |
| d. 눈 감아주다. | göz yummak. |
| e. 눈앞이 캄캄하다. | gözleri kararmak.(힘이 빠지고 기절할 것 같다.) |
| f.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göze göz dişe diş. |
| g. 눈에 익다. | göze alışık olmak. |
| h. 눈으로 말하다. | gözleriyle konuşmak. |
| i. 눈(을) 감다. | gözlerini kapamak. |
| j. 눈을 피하다. | gözlerini kaçırmak. |
| k. 눈이 높다. | gözünü yükseklere olmak.(→눈이 높이 있다.) |

- | | |
|---------------------|---------------------------|
| (5) a. 코 앞도 보지 못하다. | burnunun ucunu görememek. |
| (6) a. 입 밖에 내다. | ağızdan çıkarmak. |
| b. 입에 대다. | ağza sürmek. |
| c. 입에서 입으로. | ağızdan ağza. |
| d. 입에서 젖내가 나다. | ağızı süt kokmak. |
| e. 입을 열다. | ağzını açmak. |
| f. 입에 자물쇠를 채우다. | ağızına kilit vurmak. |
| (7) a. 이가 갈리다. | diş bilemek. |
| b. 이를 악물다. | dişini sıkmak. |
| (8) a. 혀가 꼬부라지다. | dili dolaşmak. |
| b. 혀가 돌아가다. | dili dönmek. |
| (9) a. 목이 마르다. | boğazı kurumak. |
| b. 목이 타다. | boğazı yanmak. |

2) 의미는 유사하지만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관용어

의미는 유사하지만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관용 표현 중 '머리를 굴리다'의 경우 터키어에서는 '머리를 작동시키다(kafayı çalıştırmak)'로 나타나고 '낮가죽이 두껍다'는 '얼굴이 없다(yüzsüz olmak)로 나타난다. 그 외에 터키어와 한국어에 자주 쓰이는 두부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1) a. 머리가 굳다. | beyni donmak. → 뇌가 굳다. |
| b. 머리가 잘 돌아가다. | kafası iyi çalışmak. → 머리가 잘 작동되다. |
| c. 머리를 굴리다. | kafayı çalıştırmak. → 머리를 작동시키다. |
| d. 머리카락이 서다. | tüyleri diken diken olmak.
→ 털이 가시처럼 서다. |
| e. 머리를 식히다. | kafayı dinlendirmek. → 머리를 쉬게 하다. |
| f. 머리를 맞대다. | kafa kafaya vermek. → 머리에 머리를 주다. |
| (2) a. 낮을 들고 다닐 수 없다. | kimsenin yüzüne bakamamak.
→ 아무 얼굴도 보지 못하다. |
| b. 얼굴이 노랗게 뜨다. | yüzü sararmak. → 얼굴이 노래지다. |

- (3) a. 귀가 밝다. kulağı keskin. → 귀가 날카롭다.
 b. 귀가 가렵다. kulağı çınlamak. → 귀에서 메이리가 들린다.
 c. 귀를 기울이다. kulak asmak. → 귀를 절다.
 d. 귀를 의심하다. kulaklarına inanamamak.
 → 귀를 믿지 못하다.
 e. 귀에 못이 박히다. kulaklara kazımak. → 귀에 새기다.
 f. 귀에 쟁쟁하다. kulaklarda olmak. → 귀에 남아 있다.
 g. 귀에 거슬리다. kulakları tırmalamak. → 귀를 핏퀴다.
- (4) a. 눈앞에 나타난다. gözünün önüne gelmek. → 눈앞에 오다.
 b. 눈 빠지도록 기다리다. dört gözle beklemek. → 눈 네 개로 기다리다.
 c.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göz bebeği olmak. → 눈동자가 되다.
 d. 눈에 띄다. göze çarpmak. → 눈에 부딪치다.
 e. 눈이 빠다. gözü kararmak. → 눈이 어두워지다.
- (5) a. 코가 높다. burnu havada. → 코가 하늘에 떠 있다.
 b. 코가 높다. burnu büyük olmak. → 코가 크다.
 c. 코가 납작해지다. burnu sürtülme. → 코가 미끌어지다.
 d. 코를 찌르다. burnun direği kırılmak. → 콧대가 부러지다.
- (6) a. 입만 뿔뿔하다. ağzını her açısında. → 입을 열 때마다.
 b. 입만 아프다. ağzı yorulmak. → 입이 피곤하다.
 c. 입에 발린 말. ağzından bal damlamak.
 → 입에서 꿀이 방울방울 떨어지다.
 d. 입에서 신물이 나다. dilinde tüy bitmek. → 혀에 털이 나다.
 e. 입이 싸다. ağzı gevşek. → 입이 느슨하다.
 f. 입이 가뻐다. çenesi düşük olmak. → 턱이 떨어져 있다.
 g. 입이 찢어지다. ağzı kulaklarına varmak. → 입이 귀에 닿다.
- (7) a. 목구멍까지 오르다. boğazına kadar gelmek. → 목구멍까지 오다.

3) 표현은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관용어

터키어와 한국어 관용 표현 중 표현은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눈 밖에 나다'라는 표현은 터키어에서 '포기하다(gözden çıkarmak)'의 뜻으로 사용된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빈도수가 높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 | |
|-----------------|-----------------------------------|
| (1) a. 머리를 모으다. | kafayı toplamak. → 집중하다. |
| b. 머리가 돌다. | başı dönmek. → 어지럽다. |
| c. 머리 속에 그리다. | kafada canlandırmak. → 머리 속에 살리다. |
| d. 머리를 흔들다. | kafa sallamak. → 인정하다. |
| e. 머리 위에 올라서다. | başına çıkmak. → 귀찮게 하다. |
| (2) a. 얼굴이 피다. | yüzü açılmak. → 얼굴과 표정이 깨끗해지다. |
| (3) a. 눈에 들어오다. | göze girmek. → 마음에 들다. |
| b. 눈 밖에 나다. | gözden çıkarmak. → 포기하다 |
| (4) a. 입을 모으다. | ağzını toplamak. → 말조심하다. |
| b. 입이 타다. | ağzı yanmak.. → 잘못해서 피해보다. |

4. 속담

속담은 그 민족의 독특한 예지와 정서와 심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민족을 알려면 속담을 알아야 하고, 그 속담을 모르고는 그 민족을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이기문, 1981) 또한, 속담을 통하여 그 나라의 역사, 국민성, 풍속, 인정, 신앙, 사회제도 등의 특수한 일면을 엿볼 수도 있고 공통된 인간성을 엿볼 수도 있다.

여기서는 터키어와 한국어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속담 중 의미와 표현이 유사한 속담을 비교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⁹⁾ 아래에 제시한 속담은 한민족과 터키 민족의 독특한 예지와 정서 그리고 심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두 언어의 속담을 대조 분석할 때 두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도 함께 분석하여 양국 속담 내용의 차이나 유사성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속담은 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터키의 속담을 자세히 대조 분석하면 서로의 문화와 의식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 (1) a.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 b. Yangına körükle gitmek.(불난 곳에 풀무를 가지고 간다)

한국에서는 부채를 쓰는 대신 터키에서는 풀무를 쓰는데 터키에 부채가 최근 들어 소개되어 터키인에게 부채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1)을 통해 한국의 부채를 소개하고 한국 문화에서 부채의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 (2) a. 종이 제 머리 못 깎는다.
- b. Terzi kendi söküğünü dikemez.(재봉사는 제 찢어진 옷을 못 꿰맨다)

한국어에 불교에 관한 속담이 많듯이 터키어에는 이슬람교에 연유한 속담이 많다. 종교를 떠나 한국인과 터키인의 심성이 비슷한 이유로 표현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의미를 갖은 속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아래 (3)과 (4)는 이슬람교에 연유한 속담이다.

- (3) a. 십 년 가는 거짓말 없다.
- b. Yalancının mumu yatsıya kadar yanar.(거짓말쟁이의 초는 밤 예배시간까지만 빛을 낸다)
- (4) a. 고생 끝에 낙이 온다.
- b. Sabrın sonu selamet.(인내심 끝에 행복이 온다)
- (5) a.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날까?
- b. Ateş olmayan yerden duman çıkmaz.(불 없는 데에서 연기 안 난다)
- (6) a.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 a'. İyi insan lafının üzerine gelir.(좋은 사람이 제 말하면 온다)
- b. (제 때 나타난 사람에게) 양반 되기 틀렸다.
- b'. İti an çomaklı hazırla.(개를 말할 때는 막대기를 준비해라. - 곧 나타날 것이다)

다만 위의 (6a')는 터키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반면에 (6b')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 사용된다.

- (7) a.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b. Ne ekersen onu biçersin. (밀 심으면 그걸 거두어 둔다)
- (8) a.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Güvendiğim dağlara kar yağdı. (믿는 산에 눈이 내렸다)
- (9) a. 티끌 모아 태산이다.
b. Damlaya damlaya göl olur. (방울방울 떨어져 호수가 된다)
- (10) a.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b. Başak büyüdükçe boynunu eğer. (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터키는 주식이 밀이고 한국은 쌀이다. 그러한 특징은 속담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위의 (10)에서 볼 수 있다.

- (11) a.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b. Yedisinde neyse yetmişinde de odur. (일곱 살 때 그랬다면 일흔 때도 그렇다)
- (12) a.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b. Bir elin nesi var iki elin sesi var. (한 손은 할 수 없지만 두 손은 소리가 있다)
- (13) a. 아는 길도 물어 가라.
b. Bin bilsen de bir bilene sor. (천을 알아도 아는 사람에게 물어라)
- (14) a. 국에 덴 놈은 찬 물도 불고 마신다.
b. Sütten ağzı yanan yoğurdu üfleyerek yer. (우유에 덴 이는 요구르트도 불고 먹는다)
- (15) a. 말 한 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
b. Güzel söz yılanı deliğinden çıkarır. (고운 말은 뱀조차 구멍에서 나오게 만든다)
- (16) a.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b. Yerin kulağı vardır. (땅에도 귀가 있다)
- (17) a.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
b. Kediye ciğer emanet etmek. (고양이한테 간을 맡긴다)
- (18) a. 구르는 돌에 이끼가 안 낀다.
b. İşleyen demir pas tutmaz. (쓰는 쇠에 녹이 안 쓴다)

IV.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향

터키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한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려면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문화 교육 요소 중 언어·문화 교육은 우선적으로 초급부터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 문화 교육은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대한 선입견에서 오는 부정적 태도나 문화 충격의 극복에도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한국인의 세계관과 생활 양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초급 과정의 터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교재는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교수와 학습이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습자가 수업 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과 질은 외국어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터키에서의 한국어 교육 또한 다른 곳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재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문화 교육의 질도 교재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터키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는 주교재로 연세대학교에서 발간된 '한국어'라는 표제를 단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한국어'는 총 6권으로 되어 있는데 터키에서는 4권까지만 사용한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꼭 알아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이 교재에는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소개함으로써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교재는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한국인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터키의 학습자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터키 문화와 한국 문화의 대조 분석은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단계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단계마다 꼭 다루어져야 할 문화적 내용의 목록을 만들어서 계획적인 문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급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언어·문화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적 자각(cultural awareness)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바로 사회언어학적인 능력이며,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능력이 배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초급 과정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요소의 추출은 한국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 속에 스며있는 문화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수준이 올라갈수록 문화적 숙달도를 고려한 문화적 내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문화 교육을 할 때 문법, 개념, 기능 등의 요소들은 문화를 이해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어야 한다.

한국어의 호칭어 체계는 여러 언어보다 풍부하면서도 복잡하다. 터키어의 호칭어 체계 또한 한국어의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친족 호칭어는 많은 편이다. 초급 과정에서 한국어 호칭어를 교육할 때 대명사 호칭어 유형부터 가르치고 특히 '너'와 '당신'을 제대로 인식시켜야 한다. 이름 호칭어 유형을 터키어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터키에서 '선배'와 '후배' 개념이 직장과 군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터키 학습자들이 '선배'와 '후배'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어 호칭 중 '선배'와 '후배'를 초급에서부터 가르치고 그 개념을 소개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높임법 중 객체높임법은 초급 과정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초급 과정에서는 우선 터키어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주체높임법부터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상대높임법에서는 '하십시오'체부터 시작하고 그 후 '해요'체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어 관용 표현과 속담 교육 또한 초급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는 관용표현이나 속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습자들에게 관용표현이나 속담의 사용으로 한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초급 과정에서는 한국어와 터키어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빈도수가 높은 관용표현과 속담을 통해 한국 문화와 터키 문화를 비교하여 비슷한 점을 많이 추출하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머리가 복잡하다'='kafası karışık', '머리를 쓰다'='kafayı kullanmak' 등의 표현과 의미가 동일한 관용 표현을 초급에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속담에 경우 III-4에서 제시한 18개의 속담을 초급에서 가르치는 것이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터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향은 언어 교육과 함께 통합된 형태 속에서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며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겠다.

V. 결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은 이전에 비해 많은 관심과 노력 속에서 커다란 발전이 있어 왔다. 지난 10여 년간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성과는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교수 방법, 평가 등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전체적인 큰 틀 짜기에 주력해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연구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영어권이나 일본어와 중국어권 화자들에게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각 언어권별로 보다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법이 개발되면 한국어 교육 자체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고, 보다 발전된 일반 한국어 교

육론은 다시 각 언어권별로 한국어 교육의 실제에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바람직한 고리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터키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89년에 시작되었다. 현재 터키의 실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한국어 교수진의 절대 부족이며, 이보다 시급한 문제는 표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의 교수용 한국어 교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터키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는 기초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두 언어의 연관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비교 연구에 필요한 자료, 인력, 재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비교 연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 소통 능력 신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에서 그 문화에 관한 흥미 없이는 학습자의 주의를 끌 수 없으며 바람직한 학습을 기대할 수도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흥미 있는 학습을 유도하게끔 두 언어의 언어 문화적 유사점들을 조금이나마 다루었다. 따라서 터키인들이 한국어를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터키의 교수진과 한국의 관계자들은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어교육학 사전(199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대교 출판.
강위규(1998), 「국어 관용 표현 연구」, 세종출판사.
고바야시 마사아키(1994), 「한일 양어 신체 관련 속어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문학석사 학위 논문.
권재일(1997),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권순희(1996),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Vol 3, pp.1~1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방한(1983),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 김정숙(1992),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 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갑수(2001),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도자 과정.
-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월인.
- 박영준·최경봉(1995), 「관용어 사전」, 태학사.
- 박정운(1997), 「한국어 호칭어의 체계」, 사회언어학 5-2, 한국사회언어학회.
- 성기철(1998),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이중언어학, 15
- 아크프나르, 술탄 쉐라(1999), 「한국어와 터키어의 경어법에 대한 대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우(2001), 「현대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2)」, 국어교육 106,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 이기문(1980), 「속담 사전」, 일조각.
- 윤여탁(2000),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제7집,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장경은(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단계별 문화 내용과 교수 방법」, 전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제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제1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 강승혜(2001),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 요

- 목 개발(1)』, 한국어 교육, (미국한국어교사협회·국제한국어교육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요지모음집).
- 튀르피쥬, 픽셀(1999),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말하기·듣기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적륜(1999), 『사회언어학과 한국어 교육』,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Aksoy, Ö.A.(1988), *Atasözleri Sözlüğü*(속담 사전), İnkılap.
- Aksoy, Ö.A.(1988), *Deyimler Sözlüğü*(관용어 사전), İnkılap.
- Byram M.(1999), 'Standar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he teaching of culture', *Language Learning Journal vol 19*.
- Ergin, M.(1992), *Üniversiteler İçin Türk Dili*(대학교를 위한 터키어), Bayrak B.
- Demirel Ö.(1987), *Yabancı Dil Öğretimi*(외국어 교육 이론), Usem Publications.
- Kramersch C.J.(1993),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 Kransnick, H.(1984),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ultural Competence", *On Tesol*, Washington D.C. TESOL.
- Lado, R.(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Türk Dil Kurumu(1998), *Türkçe Sözlük*(터키어 사전), TDK Yayınları, Ankara.

<초록>

언어·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

-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중심으로 -

곽셀 튀르코쥬

본고는 터키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교육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터키 내에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를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흥미 있는 학습을 유도하게끔 두 언어의 언어·문화적 유사점들을 조금이나마 다루었다.

대조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논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언어·문화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언어·문화적 요소로 호칭어, 높임법, 관용표현과 속담을 터키어의 그것과 대조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어와 터키어의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호칭어와 관용표현에 경우 두 언어에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호칭어 체계는 여러 언어보다 풍부하면서도 복잡하다. 터키어의 호칭어 체계 또한 한국어의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친족 호칭어는 많은 편이다. 터키 초급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호칭어 체계를 학습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대명사 호칭어 즉 2인칭에 대한 호칭어이다. 따라서 초급 과정에서 호칭어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대명사 호칭어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어의 높임법을 교육할 때 우선 터키어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주체높임법부터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초

급 과정에서는 한국어와 터키어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빈도수가 높은 관용 표현과 속담을 통해 한국 문화와 터키 문화를 비교하여 비슷한 점을 많이 추출하는 것이 한국어 문화 교육에 도움을 줄 것이다.

대조 분석의 바탕으로 초급 과정의 터키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터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향은 언어 교육과 함께 통합된 형태 속에서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며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겠다.

터키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89년에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의 교육 현실을 보았을 때 한국 문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어 문화 교육을 초급 과정에서 부터 시작하여 두 언어의 언어·문화적 요소들 중 유사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핵심어】 한국어, 터키어, 한국어 문화 교육, 한국어 초급 과정, 언어·문화, 호칭어, 높임법, 관용표현, 속담.

<Abstract>

**A study of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from the Linguistic and Cultural
Factors's Point of View**

Göksel Türközü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ercuss the possibility to educate Korean culture in Turkey as presenting the educational contents of Korean culture for the beginners who get access to Korean language. This thesis will show the linguistic and cultural similarities between two languages to make the beginners to concern about Korean language and to induce them to have an interest in learning it.

Before analyzing, I would examine the close relationship, the purpose and the contents of educating foreign language and culture in order to make the argument clear.

Then I would analyze the use of appellation, honorific expression, idioms and proverbs in Korean and Turkish as the linguistic and cultural factors. It reveals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in the structural and even cultural aspects of both languages. Especially, in the case of appellation and idioms many commons were appeared. For example the Korean appellation has one of the most profound and complex systems, and so does Turkish, particularly in the relative appellation. The most difficult part for the beginners who

study the Korean appellation is the pronominal appellation -the second person appell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make them understand the pronominal appellation exactly in the basic step. It is recommended to give lessons first in the subject honorific expressions, which appear in Turkish. Through idioms and proverbs, which appear with high frequency and many similarities, to obtain the analogous comparing two cultures will be helpful for educating Korean culture.

I would go over the direction of educating Korean culture for the beginners based on that analysis. This direction should be in the form of combination with language education and make the students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and have interest in learning Korean.

In Turkey,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started since 1989 so far we can hardly deny that Korean culture education is not enough observing our educational environment. Therefore, we have to educate Korean culture from the beginners step dealing with the linguistic and cultural similarities of two languages.

【Key words】 Korean, Turkish, Korean Culture Education, Korean Beginner's Course, Language&Culture, Honorific Expressions, Appellation, Idiom, Proverb.